

제2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모두발언(8.27.)

□ 안녕하십니까,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입니다.

[총괄]

□ 바쁘신 가운데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 참석해주신
민간·정부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.

□ 지난 제1차 협의회에서
미래대응기금과 교육교부금 개편을 논의했습니다.

- 오늘은 ‘우리 산업의 미래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.
내년도 예산안 발표에 앞서,
‘**대체불가 초격차 산업강국으로의 도약**’을 위한
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

□ 지금 세계는 화면 속에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던 AI를 넘어,
현실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
피지컬 AI와 그 집약체인 휴머노이드 중심으로
재편되고 있습니다.

- 미국은 자본으로, 중국은 규모로 달려가고 있습니다.
앞으로 **3년이 기술과 표준의 주인이 결정되는 골든타임**입니다.

- 이 시기를 놓치면, GPU에 이어 피지컬 AI 생태계마저
해외 빅테크에 종속될 수 있습니다.

□ 우리에게 남은 승부수가 있습니다.
바로 ‘현장’입니다.

- 근로자 1만 명당 로봇 1,220대, 세계 1위입니다.
반도체와 배터리에 세계적인 기업이 있고,
조선·자동차·디스플레이 등 로봇을 써볼 현장이 준비합니다.

- 다만 “AI 기업은 모델만, 로봇 기업은 하드웨어만, 제조기업은 현장을 좀처럼 열지 않는다”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.
- 끊어진 이 고리를 정부가 잇겠습니다.
오늘 관제부처가 원팀으로 준비한 네 개의 안건이 그 답입니다.

안건 ① 휴머노이드 생태계 육성을 위한 재정투자 방안

- 첫 번째 안건은 휴머노이드 생태계 육성입니다.
내년 6천억원, 2030년까지 2조 3천억원,
민간 매칭을 더하면 2조 7천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.
- 목표는 분명합니다.
“로봇의 머리부터 발끝까지, 우리 기술로”입니다.
독자 플스택을 갖추겠습니다.
- 2030년까지 10대 업종별* 양산 체제를 만들고,
핵심부품 국산화율을 45%에서 80%로 끌어올리겠습니다.
- * ①디스플레이, ②항공, ③물류, ④유통, ⑤조선, ⑥자동차, ⑦가전, ⑧화학, ⑨병원, ⑩호텔
- 첫 손님은 정부가 되겠습니다.
국산 휴머노이드를 내년 250대,
2030년까지 1,080대 구매하겠습니다.*
- * 非휴머노이드까지 포함한 정부 AI로봇 구매는 '27년 약 1,700대, '30년 약 5,000대
- 지금 우리 주요 대학 휴머노이드 연구실 중 일부는
이미 중국산 로봇을 쓰고 있습니다.
우리 청년들이 우리 로봇으로 연구하게 하는 일,
거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.

- 아울러 전동화로 일감이 줄고 있는 자동차 부품기업이 로봇 부품 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.
- 수십 년 쌓아 온 우리 제조 현장의 손끝 기술이 사라지지 않고, 새로운 산업의 뿌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

안전 ② 8대 핵심분야 피지컬 AI 실증 추진방안

- 둘째, 피지컬 AI 실증입니다.
내년 7천억원, 2030년까지 2조 8천억원,
민간·지방비를 더하면 4조원 규모를 투자합니다.
- “기술을 개발했는데, 시험해 볼 현장이 없다”
이것이 우리 기업들의 가장 큰 호소였습니다.
- 이제 정부가 현장을 열겠습니다.
공장과 논밭, 공사장과 항만, 병원과 군부대까지
8대 분야, 내년 한 해에만 500곳 이상에서
실증이 이뤄집니다.
- 원칙도 분명히 했습니다.
우리 현장이 외국 플랫폼의 시험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.
국산 기반기술 적용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.
- 다만, 로봇만 덩그러니 가져다 놓지는 않겠습니다.
- 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에는
공간 동선 정비와 업무절차, 종사자 교육까지 묶어서 지원해,
사람과 로봇이 ‘함께 일하는’ 돌봄을 만들겠습니다.
- 군에서는 가장 위험하고 힘든 임무부터 로봇이 맡습니다.
부모의 마음으로, 우리 장병들의 안전을 먼저 챙기겠습니다.

안건 ③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방안

- 셋째,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입니다.
내년 2,388억원을 투입합니다.
- 3년간 매출이 연 20% 이상 오른 고성장 기업 비중은 14.4%에서 7.8%로 반토막이 났습니다.
'24년에는 증전으로 올라선 기업 328개보다
증소로 내려앉은 기업이 427개로 더 많았습니다.
 - 끊어진 성장 사다리를 다시 잇겠습니다.
- 방식을 바꿀 것입니다.
‘나눠주기’를 끝내고 ‘키우기’로 가겠습니다.
 - 신안보·제약바이오·기후테크·K-소비재 4대 분야에서
매년 300개사를 선발하고,
기업마다 ‘성장 디렉터’를 1대1로 배정하겠습니다.
 - R&D부터 금융·수출·인력까지 한 묶음으로 지원하되,
2년간의 성과를 평가해 3년을 더해
기업당 최장 5년, 최대 100억원+ α 를 지원하겠습니다.
 - 규제와 판로처럼 돈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병목은
관계부처와 함께 걸어내겠습니다.

안건 ④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

- 마지막으로,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입니다.
- 22개 부처, 671개 사업, 31조원.
숫자는 컸지만 기업이 손에 쥘 것은
몇백만원, 몇천만원이었습니다.
 - “어느 문을 두드려야 할지 모르겠다”는 말이
현장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왔습니다.
- 그래서 지난 3월부터 17개 부처와 함께 전면 점검했습니다.
232개 사업을 통폐합·폐지하거나 감액해
4조원을 절감했습니다.
 - 줄이는 일은 늘리는 일보다 몇 배 어렵습니다.
그러나 미래를 위한 일이라면,
그 악역,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.
- 다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
이번 효율화는 중소기업 지원을 줄이자는 것이 아닙니다.
 - 아낀 재원은 성과가 검증된 사업과
새로운 랜드마크 사업에 전액 재투자하겠습니다.
 - 앞으로는 성장성과 잠재력이 확인된 기업을 중심으로,
그리고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.
- 관제부처에서는 이번 효율화가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
지속 점검해 주시고,
통폐합 과정에서 기업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
공고체계 정비와 사전 안내에
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.

[마무리]

□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.

“결국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 아니냐.”

○ 저희의 답은 이렇습니다.

사람이 하기에 위험한 일, 사람이 없어 멈춰 선 일,
바로 그곳에서부터 로봇이 일하게 하겠습니다.

○ 우리 국민이 더 안전한 자리에서,
더 나은 일을 하도록 하는 것.
그것이 오늘 이 자리의 목적입니다.

□ 증장기 전략이 나침반이라면,
재정은 실제로 길을 내는 수단입니다.

○ 오늘 위원님들의 과감하고 구체적인 지혜가
그 길의 첫 삽이 될 것입니다.

□ 감사합니다.